



## 위안화의 국제화 가속화 전망

이정환 선임연구원

### ■ 중국과 일본 양국은 6월 1일부터 위안화와 엔화를 직접 거래하기로 결정함.

- 5월 29일 아즈미 준 일본 재무상은 중국과 일본이 6월 1일부터 위안화와 엔화를 직접 거래한다고 발표하였으며,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성명을 통해 위안화와 엔화 직거래를 밝힘.
- 양국의 민간은행들은 도쿄와 상하이 시장에서 엔화와 위안화 직거래를 시작할 예정임.

### ■ 위안화와 엔화 직거래는 현재 중국의 대외 수출 둔화와 일본의 경기 침체 상황에서 양국의 경기 부양과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.

- 중국과 일본 양국 간 무역 결제에 미국 달러 환전 없이 직거래 하게 되면 환율 위험과 무역 거래 비용을 줄이면서 양국의 무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.
  - 그동안 중국과 일본은 달러를 매개로 위안화와 엔화를 거래하며 상당한 환전 수수료를 부담해 왔고, 복잡한 거래 절차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데 이번 조치로 매년 30억 달러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
  -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중국은 일본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될 것으로 보여, 향후 위안화와 엔화 직거래 효과는 커질 것으로 전망됨.<sup>1)</sup>
- 또한, 양국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엔화와 위안화 거래 비용이 줄면, 위안화 기준 금융상품을 구입하기 쉬워지고 위안화로 채권을 발행하기가 수월해져 기업의 자금난 완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.
- 한편, 이번 조치는 위안화가 미국 달러와 연결되는 체제에서 벗어나 국제 기축통화로 자리매김 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보임.

(Bloomberg, 5/29)

1) 2011년 일본의 대중 수출은 12조 9,000억 엔(약 190조 원), 중국에서의 수입은 14조 6,400억 엔을 기록함.